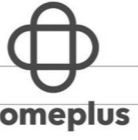


홈플러스 희생 무산...대량 실직·협력업체 피해 '후폭풍'

법인,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수준 부진한 업황에 자금줄 막혀...지역 6개 점포 타격

홈플러스 사태 주요 일지

연도	내용
1997년	상성물산 유통부문, 대구홈플러스 1호점 개점
1999년	테스코, 상성물산 유통부문 경영권 및 지분 인수
2005년	상성물산-테스코 합작법인 '상성테스코' 설립
2008년	부산-경남지역 유통업체 아림마트 인수
2011년	이랜드그룹 홈에버(옛 까르푸) 인수
2015년	테스코, 홈플러스 지분 100% 확보
2016년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착수
2024년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착수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사실상 파산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서 광주·전남지역 6개 점포의 향후 운영은 물론 협력업체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핵심인 잔존 사업부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전남지역 점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현재 지역에는 동광주점, 광주하남점, 순천점, 광양점, 목포점, 순천풍덕점 등 6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목포점과 순천풍덕점은 이미 폐점 대상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4개 점포는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고객 감소와 상품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점포는 계산대 운영을 축소하고 있으며, 임업업체들도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연맹 마트노조 광주전라본부장은 "올해 3개월분(4-6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2개월분만 지급됐다"며 "향후 임금 체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동부권의 경우 한때 3개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300명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22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근로자보다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임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홈플러스의 매각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대차자금(채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도 있다.

반면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물품대금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금융기관의 담보채권이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분류된다.

자산 매각 대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변제율이 5~10% 수준에 그치거나 아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영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2주 안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임대료 감액 협상과 일부 점포 영업 중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다"면서 "하지만 회생 과정에서 상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국 운영자금 투입 없이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항구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성원해 주신 고객분들과 당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임금체불 피해 생계안정자금 2100만원 지급·저금리 융자

정부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 홈플러스 재직자에게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에 경영 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등 충격을 줄이는 조치에 나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의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파산 수준에 들어가게 됐다.

단 홈플러스 측이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차자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실직 근로자들은 실업 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60만~100만원 가량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금리 연 1.0%를 적용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창업진흥원,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총 9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p) 인하한다. 연합뉴스



한전KPS, 현장 중심 예방감사 확대 한전KPS는 최근 이상구 상임감사 주관으로 'IMPACT-UP 2026, 조직을 변화시키는 감사'를 새로운 감사 슬로건으로 선포하고 예방 중심의 감사 혁신체제를 본격 추진했다. 세 슬로건인 'IMPACT-UP 2026'에는 감사를 통해 안전과 설비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감사의 역할과 영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신임 광주국세청장에 양철호 정보화관리관

국세청 차장에 박해영... "국정·조직 안정적 뒷받침"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선임됐다.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인사를 통해 양철호 정보화관리관(55·사진)을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8일자로 발령했다. 신임 양 청장은 경북 영주 출생으로 부산대학교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듀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99년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

해 서울청 조사1국장과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1국장, 국세청운영지원국장·기획재정담당관, 안동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재직 당시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하는 '세무 특화형 국세청 AI 챗봇'을 시범 운영하는 등 국세청 행정 AI 대전환을 위해 기여했다. 국세청은 경륜 있는 지방청장을 배

치해 국정·조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국세청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차장(고위 가급)에는 박해영 부청장 겸세무부장관이 승진·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안덕수 부청장 겸조사국장이, 제주지방국세청장에는 김지훈 부청장 기획조정관이 각각 보임됐다. 정현아 기자 aura@

반도체 호재에 첨단권역 주택시장 '훈풍'

마피 8000만원서 웃돈거래 반전...회복세 뚜렷 '첨단대라수 1차' 분양 전환 문의 등 관심 집중

반도체산업 투자 등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광주 첨단권역 부동산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미래차·반도체 육성 정책의 중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며, 지지 기반과 지역 실수요를 동시에 끌어당기는 모양새다.

먼저 불어 불은 곳은 첨단3지구 분양권 시장이다. 올해 초만 해도 8000만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했던 '힐스테이트 첨단센터'와 '첨단제일풍경'은 반도체 호재에 힘입어 마피를 회복했다. 국민명당(전용면적 84㎡) 기준

2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기에 '호반씨티'의 분양과 심혈관센터 건립까지 가세하며 일대 주택시장의 활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첨단3구리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시장의 관심은 인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 분양권을 추진 중인 '첨단대라수 1차'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첨단지구 한 공인중개사는 "첨단3구리의 마피가 해소되면서 입지와 가격 메리트가 두드러진 첨단대라수 1차 잔여세대 및 일반분양 전환 시기를 묻는 투자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내년 분양 예정

된 첨단대라수 2차부터 5차까지 상담에 약이 밀리는 등 첨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8년여간 안정적으로 운영된 민간임대주택인 '첨단대라수 1차'는 대형마트, 병원, 금융기관,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AI 집적단지과 인접해 완벽한 직주근접 여건을 자랑하며, 단지 관리상태와 경우 여건이 검증됐다는 점에서 실거주 수요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선택지로 꼽힌다.

교통 호재도 확실하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노선이 첨단지구 중심을 관통해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누릴 전망이다.

반양전환 가격은 4억 초반대로 책정돼 주변 신규 분양이나 첨단3구리의 프리미엄 매물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재용 기자

경력보유·다문화 여성 취업문 '활짝'

전남광주통합특례시, 10일 광주청사서 '여성 잡페스타'

전남광주통합특례시가 여성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광주청사 1층 시민홀에서 '2026 광주 여성 잡(JOB)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보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하고 서구·송원대·광주·광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하나

된 전남광주여성, 내일(WORK)을 잡(JOB)다'를 슬로건으로 경력보유여성과 다문화여성 등 지역 여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채용면접관(40개), 취업지원관(5개), 직업체험관(7개), 부대행사관(6개), 홍보관(13개) 등 모두 71개 부스가 운영된다.

채용면접관에서는 제조업과 사무직,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우수기업 40개사가 참여해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취업지원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문 상담사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직업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AI) 광고 제작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유망 직업을 체험할 수 있으며, 부대행사관에서는 경력보유여성과 다문화여성들이 참여

하는 칠보공예, 목공예, 다문화 음식 등 플라마켓이 운영된다. 홍보관에서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여성 고용정책과 취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행사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성영아 한국인력경쟁개발원 대표가 'AI 시대, 나의 경력을 일자리로 바꾸는 방법'을 주제로 취업 특강을 진행한다.

박람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여성 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은 오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통해 비대면 구직 활동도 가능하다.

최경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여성가족 국장은 "이번 잡(JOB) 페스타가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에 다시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출산과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과 육아·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례시에는 모두 14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상담사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올해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는 여수와 순천에 이어 오는 10월 30일 목포에서 세 번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통합특례시 출범 기념 공공배달앱 할인행사

19일까지 땡겨요·위메프오·막개비 등 5000원 쿠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가 통합 출범을 기념해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공공배달앱 '땡겨요', '위메프오', '막개비'를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결제하는 이용자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총 4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매로 발급이 제한된다.

전남과 광주는 지난 2021년부터 민간 협력 방식으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전남은

'막개비'를, 광주는 '땡겨요'와 '위메프오'를 각각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1.5~2.0%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은리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 할인 혜택을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수순선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경제실장은 "이번 할인쿠폰 행사는 통합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점차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